

생산지수 높여 원가절감 할 때



장 대 석
· 본회 안성분회장
· 쌍룡농장 대표

정 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인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금년 새해에는 덜 마음 조리며, 하고자 하는 바 대로 양계농장을 꾸려 나갔으면 한다.

양계업 중 채란부문은 매년 소득이 감소하여 농가 마다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우선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내적인 문제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되어지는 관리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사료와 시설 수준, 병아리를 가지고도 산란지수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다. 경영주 자신이 우선 사양관리나 기계 설비에 있어 누구 못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장 처럼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 곳은 아마 없다고 볼 때 양계장에서 경영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감이 든다.

전문 관리인도 제대로 없고, 경영주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양관리가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아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한 생산지수가 낮아 경영합리화가 안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보다 현재는 사육단위가 매우 커져서 한 곳에서 출하되는 계란 양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시설자동화의 여파로 각 농장의 사육 규모도 커져서 자칫 잘못하면 계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게 되는 만성적인 불황이 늘고 있다고 있음을 심분 이해 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란의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데 안전성 확보와 신선도 유지이다. 질병의 급증, 유통의 불합리, 환우계 과다사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문제삼을 우려가 있는 계란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다.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소모성 질병을 제외한 법정 전염병이나 난계대 전염병 등은 개인 농장에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에 지역간, 또는 농장간의 방역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계란 생산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병아리 생산에 있어서 품종간 농장간의 능력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 보다 더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종계장이나 부화장의 능력을 평가해야 할 때라고 본다. 중추도 예외일 수는 없다.

외국에 비해 실용계 생산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커서 제능력을 발휘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청정한 병아리를 생산하도록 행정당국은 규정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약추나 병약계가 실용계 농장에 입식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사료비인데 우리나라는 사료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가격 폭등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 값이 뛰면 높은 대로 구매를 하여 사료값에 반영만 시키면 그만이다.

차후 사료원료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늘 환차손, 물류비 상승 등을 내세워 인상분의 절반 수준도 안되게 인하를 시켰다가 원료가 또다시 약간만 상승한다면 두자리수 이상으로 인상을 시켜 생산비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료, 병아리, 법정 전염병 차단, 수송차량 소독 등은 농가에서 임의로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계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과감한 행정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비야흐로 양계산업은 '97년 하반기이면 전면 수입이 개방이 된다. 물론 조란(전란액)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쿼터량으로 수입추천을

앞으로는 소비처에서 고품질 포장 등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적으로 양계인들이 포장까지 가능하고 등외란, 피란, 오란세척 등을 처리하여 품질은 향상시키고 이에 수반되어 나오는 하자품을 가공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 같다.

받도록 되어 있으나 물량이 많아 개방이 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완전 수입개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양계인들은 앞서 언급한 사안들을 잘 헤아려서 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높이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투자에 대한 낮은 회수율로 점차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일전에 IBC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계란소비량은 대략 뉴질랜드 202개에 이어 국내 자료를 토대로 볼 때 12위 정도에 올라 있다고 분석이되어 소비에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수입물량의 눈치를 보아가며 같은 채란 인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음을 예견하여 누가 생산성을 높여 낮아지는 마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 총력을 펼치는 일이 곧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도 증가해 간다면 그리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 볼 때는 소비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 되고 있어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채란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중의 또 다른 요소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는 가운데 개개의 농가에서 계란을 선별처리하여 상인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 고시가는 있으나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제값 받기는 그림의 떡과 같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소비처에서 고품질, 포장 등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적으로 양계인들이 포장까지 가능하고, 등외란, 파란, 오

란세척 등을 처리하여 품질은 향상시키고 이에 수반되어 나오는 하자품을 가공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 같다.

이제는 농가에서 선별을 거치지 않고 집하장이나 G·P센터에서 일괄작업을 하여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포장·세척 기계까지 농가에서 구입한다면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처럼 공동 처리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고 제안을 한다.

어쨌든 정축년 새해부터는 농장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황하나마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을 밝히면서 다함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양계**

노 계 유 통 전 문



노계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대림유통이 탄생했습니다.
양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대 립 유 통

대 표 변 광 일

충남 천안시 다가동 373-3 (삼화B/D302호)

Tel: (0417)574-4600-1

FAX: (0417)572-5949